

# 光日春秋

백홍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물론 저탄소 경제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구조적으로 철학 없이 포괄해 짜 맞추는 식으로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국력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는 국가 장기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5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난 이래,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지구의 탄소순환시스템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 왔다. 즉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CO<sub>2</sub>를 분해시켜 산소와 탄소유기체를 만들고, 이 탄소유기체를 생물이 흡수 산화시켜 에너지를 이용하고 CO<sub>2</sub>는 다시 공기 중에 돌려보내는 순환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흡수 배출되는 CO<sub>2</sub>가 균형을 이루며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약 5만년 전 나타난 우리 인류는 1만년 전 빙하기가 끝나자 농경을 바탕으로 문명을 만들고 또 불을 사용하며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여년 전부터는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지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최근 백년간은 과학기술에 의해 문명이 폭발하며

## 녹색성장, 과학기술이 중심돼야

우리 인류의 삶과 지구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 대부분의 인류가 살 갈게 된 것이고, 또 그 결과 지구 생태계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어렵게 살아왔다.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우리 인류의 1인당 평균소득은 100달러 이하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인류의 1인당 평균소득은 약 6천달러 수준으로, 아마 지금 산중이 옛날 왕 보다 더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풍요한 삶과 경제 성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엄청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탱되어 왔다. 현재 인

류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약 4000억kW/h 이고 이중 7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이다.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에 달한다.

사실 화석연료는 수억 년 동안 우리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탄소유기체의 형태로 축적한 것이다. 이렇게 저금한 에너지를 지금 인류가 최근 백 년 동안 대책 없이 마구 퍼 쓰고 있다. 만약 지구의 역사를 일 년으로 비유한다면, 지구가 1년 내내 모든 에너지를 현 인류가 0.1초에 다 써버리고

있는 셈이다. 지구가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렇게 갑자기 대부분의 인류가 살 갈게 된 것인 CO<sub>2</sub> 농도를 증가 시켜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문명을 지탱해 왔던 화석연료가 급세기 말까지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현재 채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은 1천억 배럴 정도 추정되며 현 추세로 약 30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싼 가격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는 곧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벌어진 일은 명확하다.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출한 탄산가스를 자기가

흡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 이면서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저탄소 체제와 에너지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그 특성상 경제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 되어야 하며, 사회경제 구조도 이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재생 에너지 개발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양 에너지 활용기술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하루에 받는 에너지의 양은 약 4000조kW/h에 달하며 그중 1/1000만 제대로 활용해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서 안전한 원자력 기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 없이는 저탄소 경제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녹색성장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장기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도심속 흉물’ 사직공원 이대로 둘 건가

광주시 남구에 자리 잡은 사직공원이 관리 소홀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한 때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직공원이 지금은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노숙자의 잠자리, 인근 빈 집 등으로 인해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면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직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원 내 방갈로는 노숙자들의 잠자리로 변질됐고, 그 주변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공원 입구에는 빈 집이 10년 이상 방치돼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공원관리사무소 측은 도시계획법상 공원 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남구청도 사유재산이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2005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사직공원을 도심 내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입도로 주변 개선, 노후시설물 교체 등 공원환경 개선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시의 이런 노력이 관리 소홀로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직공원은 유일한 도심 속 녹색공간으로 지금도 연간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더욱이 광주는 녹색 공간이나 공원이 부족해 타시도에 비해 삭막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어떻게 문화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사직공원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실업자 100만명 눈앞...정부 대책 뭘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용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취업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14만2천 명이

나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2003년 9월(-18만9천 명) 이후 5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 수는 92만4천 명으로 실업률 4%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마지막 노선이라 할 수 있는 ‘100만 명’마저 넘보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취업자는 각각 1만 명과 1천 명이 줄어드는 등 두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 취업자 수가 7천 명이나 감소했는데 이는 이들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하루 하루 먹고 사는 데에도 힘든 이들이 취업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데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더 많은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한다며 내놓은 청년 인턴제는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4개월에서 1년짜리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역시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전방위로 펼쳐져야 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조~6조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사회적 집자본시설(SOC)과 녹색 뉴딜 등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서둘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고용시장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이윤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공무원들의 마인드, 친절도가 많이 개선됐다. 지방자치 도입과 함께 강조된 ‘경영행정’은 과거 틀에 박힌 공직사회의 관념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료주의에서 탈

이같은 어둠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라남도가 공무원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3개월가량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한 결과 상당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 운영 이전에는 일부 교육원 시설환경이 노후하고,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확보된 적은 예산으로

### 기고

지남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 받은 삶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마음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오늘도 우리들 가까이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육신의 고통을 몸부림치고 세상을 떠나고, 또한 잃어버린 시력으로 어둠에 세상을 살아 가고 있다. 이식받은 장기를 얻지 못해서이다. 장기이식은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는 장기기증재단의 창립취지문의

것이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다르지 않다. 음악은 우리의 정신을 씻어줘야 한다. 미술행위는 우리의 아픔까지도 그려야만 한다. 무용은 우리의 놀이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체육모임에서 우리의 건강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깊은 애정을 가지며, 또한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 새로운 생활습관과 전통이 만들어져야만 진정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 창의적인 공직자 밝은 미래 만든다

피하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거나 고압적인 대민자세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넘나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존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우선이다. 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한 선결요건은 교육강화에 있다. 공직사회가 보다 친절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도 환골탈태할 필요가 있다.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는 우선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 전자제품을 만든다”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쳤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톰 피터스는 “경기가 좋을 때는 교육예산을 2배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4배로 올려라”라고 하듯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경영자들은 인재를 조직의 최고 자산으로 여기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한다.

이렇듯 더 많은 공무원 교육투자가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어렵게 생각한다.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고 청사 안팎도 정비한 결과, 상당히 쾌적하고 청결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생산성본부 측에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생산성본부 소속 전문 강사진 등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예년보다 모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전남도 공무원교육운영의 민간위탁은 민간교육기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교육원 측의 시설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도청과 시·군 소속 공무원 9천여 명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생산성본부 측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친절하고 열린 자세를 갖춘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창의성을 열정을 갖춘 공직자가 더 많아질 때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이다. <전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 ‘하계 U대회’ 세계속의 1등 광주에서

일부분이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장기기증재단이 같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되는 큰 행사이다. 이와 같은 문화·체육행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인 소득이 실로 대단하다고 한다. 그러나 큰 규모와 높은 수준의 문화·체육행사가 가져올 발전된 의식변화를 더 기대한다.

고취된 시민의식과 정신문화가 세계속에서의 광주가 되는 저력으로 믿기 때문이다.

한 번의 행사로 끝이 날 수는 없다. 그

아름다운 광주의 모습으로, 바른 광주사람의 생각으로 바뀌는 체질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광주 5·18 정신, 세계 속에서 광주비엔날레, 세계 속에서 광주 맛자랑을 이루면 좋겠다.

5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FISU총회에서 광주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최지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수고하는 자들의 흘리는 땀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멋진 조화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광주주최를 바란다.

〈장기기증재단 이사장〉

## 가짜 판치는 미술시장, 감정 체계 선진화 시급

미대에서 서양미술을 전공하고 지금도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다. 얼마전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지만 위작 의혹이 제기됐던 박수근 화백의 작품 팔레타가 진품으로 판정받았다. 이 작품은 무려 45억 원짜리였다.

이렇듯 위작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지만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 미술작품의 매체에 관심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런 미술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 모두 작품의 감정 제도가 보다 과학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

당장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미술품 감정이 보다 공신력을 얻도록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종섭 화백 작품의 위작 사건의 경우 이 그림을 분석한 결과 이 화백의 생존시에는 없던 물감이 나와 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러나 유명 작가들이 썼던 물감과 캔버스 등 미술 재료도 수집, 분류가 안 돼 과학

적 분석의 토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그때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즉 어떤 물감으로 어떻게 그렸느냐, 어떤 천 위에 그렸느냐는 것이 연구되고 축적되어 과학적 자료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술사적 기록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신의 모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도록에 남겨 비교할 수 있게 해야하지만 전집 도록이 나온 유명 작가는 국내에 장욱진 화백 한 명뿐이다. 국내 미술계에서는 비교자를 볼 수 있는 목록집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카탈로그 레조네(전집도록)도 만들어야 한다.

정부 또한 미술품 전문 감정 인력을 하루 속히 양성하고 감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감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비약적으로 커진 미술 시장, 경매회사의 미공격자에 대한 검증과 미술품 감정 체계의 선진화는 너무 시급한 상황이다. <▲이닝철·광주시 북구 광과동>

### 無等鼓

신라 경덕왕 시절 김태렴이라는 ‘왕자’가 있었다. 김태렴은 어느 해 700여 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천황을 만난다. 잔뜩 몸을 낮춘 그는 ‘신라가 대대로 일본을 받들어왔다’는 등, ‘신라 국왕 대신 조공하고 인사를 드리려왔다’는 등 일발일리 소리로 천황의 혼을 빼 놓아 극진한 대접까지 받는다.

김태렴이 귀국한 이듬해 일본은 신라

에 사신을 파견했는데, 경덕왕은 일본 사신을 거둬보지도 않고 쫓아버렸다. 사신의 보고를 접한 천황은 그제서야 ‘회대의 사기극’에 분노하며 땅을 쳤다.

사실 김태렴은 진골 귀족이긴 했어도, 왕자는 아니었다. 그의

일행도 공식사절단을 위장한 귀족 상인 집단이었다. 김태렴은 일본에 머문 한 달 보름동안 일본 고위관료들과 사찰 등에 정향(丁香)·노루배패사향·안료 등을 고가에 팔아치웠다. 이들 물품들은 대부분 동남아와 인도에서 사들인 것으로, 김태렴이 일본에 이들을 되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겼음은 두말할 나

위가 없다.

고구려와 백제, 일본 등 강대국에 포위된 신라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전략은 바로 무역이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시냇말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국왕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삼국사기’는 증언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천200여년 전의 얘기다.

에나 지금이나 이렇다할 자원이 없기는 매 한가지다. 굳이 신라 이후 역사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오늘날과 같은 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무역이었는데 판자를 걸 사람은 없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일행도 공식사절단을 위장한 귀족 상인 집단이었다. 김태렴은 일본에 머문 한 달 보름동안 일본 고위관료들과 사찰 등에 정향(丁香)·노루배패사향·안료 등을 고가에 팔아치웠다. 이들 물품들은 대부분 동남아와 인도에서 사들인 것으로, 김태렴이 일본에 이들을 되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겼음은 두말할 나

/이종태 사회2부장 @kwangju.co.kr

### 김태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사자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